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박수영(Soo Young Park)¹⁾

이재연(Jae Yeon Lee)²⁾

ABSTRAC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u-Ja-Yu-Chin-Sung-Cheong*, child's self 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cultural virtues. *Bu-Ja-Yu-Chin-Sung-Cheong* which is the Korean traditional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defined as a characteristic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ithin Korean culture by Choi, sang jin. The subject of the study are 656 students from 4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 they were 5 and 6th grades. The study was executed by surveying them with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co-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were : (1)the Korean traditional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 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 child. (2)The Korean traditional bonding has a impact on a child's acceptance of others and social behavior. However, according to the level of a child's self differentiation a child's dominance-ascendance, ostentation-narc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lination increased.

Key Words : 부자유친성정(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대인관계성향(Interpersonal Relationship), 문화적 가치(Cultural virtues).

* 200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상담원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 Young Park, Geukdong Counseling Psychology Institute #1304 Hyundai 41Tower,
917-9 Mok1-dong, Yangcheon-gu, Seoul 158-723, Korea
E-mail : swimpark@korea.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물리적 안정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또한 최초의 관계경험은 관계맺기의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 대다수가 서양의 이론에 기초하고 서양의 도구에 의존해 오고 있다(윤기영, 2004).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이 부족함에 따라 한국적 이론기반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서양에 대한 학문적 종속, 학문의 사대주의 경향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양의 이론들과 측정도구는 한국문화 내 부모자녀관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부모자녀관계란 문화권과 관계없이 문화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세대차이 문제를 규명하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지향적인 역할 행동을 지지하는 노인과 진보적인 청소년 간에 분명한 세대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은 모두 생활목표로서 다른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김의철·박영신·김명언·이건우·유호식, 2000).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분석을 한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함병미·박영신·김의철, 2003).

이러한 사실은 오랜 세월동안 구축된 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사상은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각 개인과 사회 기저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문화가 서구화 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심층에 자리한 전통적 가족관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되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문화적 가치와 전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최상진(1993, 2000)은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 한결같이 미안감, 측은감, 고마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惻隱之情)을 가지고 있다 하였다. 이는 부모자녀동일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끈끈한 감정 의식 동일체적 관계를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으로 정의하였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는 얼마나 독립적이고 개별화(individuated)되었는지를 성숙의 지표로 삼는데 반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심정적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김효창·손영미·박정열·최상진, 2000). 즉,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관계주의적 성숙으로서, 부모의 마음써주기를 얼마만큼 알고 자녀가 마음 쓰기로 응답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주목받아온 개념이 자아분화이다. 자아분화는 안정된 부모자녀관계가 전제될 때 개인이 건강하게 분리되고 독립할 수 있다는 서양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빈번하게 활용되어온 심리내적 구성개념이다.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이다. 첫째, 정신내적인 개념이라 함

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지적체계에 의해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곧 개인 내적인 심리적 균형과 안정감이다. 둘째, 대인관계적 개념이라 함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고,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목표 지향적 삶을 살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서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합리적인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서구문화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박유화(2001)의 연구와 심혜숙·신영규(1994)의 연구에서 보면 가족내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명애(1993)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단절하고픈 욕구를 강하게 느낄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견상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친밀한 관계의 실패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재(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일체성이 높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우려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서양의 시각으로 조망한 데에서 기인하는 성급한 기우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부모 간 갈등상황에 있어서도 서양에서는 부모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건강하다는 결과와 달리 한국의 아이들은 부모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응집력 높은 가족관계는 관계주의

문화에 사회화되어야 하는 한국 아동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적응력을 길러주는 긍정적 측면에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가족관계와 자아분화의 발달, 그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용가능성과 제한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나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계를 밝히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부자유친성정이 대인관계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비교분석한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강서구 1개, 용산구 1개, 동대문구 1개, 은평구 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 인	구분	빈도	%	변 인	구분	빈도	%	계
학 년	5학년	268	40.9	성 별	남	298	45.4	656 (100%)
	6학년	388	59.1		여	358	54.6	

개) 5, 6학년 아동 총 656명이다. 남자 아동이 298명(45.4%), 여자 아동이 358명(54.6%)이며, 학년별로는 5학년 아동이 268명(40.9%), 6학년 아동이 388명(59.1%)이다.

2.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척도 문항에 대한 아동의 문항 이해정도와 응답 정도,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후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고,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 2인, 아동복지학 박사학위소지자 2인과 논의를 거쳐 본 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3월 30일부터 1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대상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부자유친성정 척도

아동의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이장주(2002)가 제작한 부자유친성정척도를 본 연구자가 아동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에게 적합하지 못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삭제하였고, 교육심리학 박사학위소지자이자 현직 교사 2인,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상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어나 문항의 이해도를 재조정하였다. 아동용 부자유친성정 척도

역시 일체감 11문항, 헌신 9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아동의 부자유친성정 척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총 20문항은 부자유친성정 전체변량 중 아버지에게 대해 51%, 어머니에게 대해 55%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일체감과 헌신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공동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삭제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일치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문항 구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하위요인의 구분 없이 전체 총 2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자유친성정의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의 부자유친성정 척도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 가 .93과 .94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다.

2) 자아분화 척도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본 연구자가 아동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술한 현직 교사 2인과 아동복지학과 박사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하위영역, 전체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첫째,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성원들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가족퇴행, 둘째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견지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자아통합, 셋째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분화, 넷째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부정하고 정서적 거리를 두고 고립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정서적 단절, 다섯째 부모 간의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는 가족투사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직교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 문항이 제거되었고 나머지 22개 문항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인별 신뢰도 계수는 가족퇴행 .80, 자아통합 .68,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분화 .67, 정서적 단절 .72, 가족투사과정 .67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3) 대인관계 성향 척도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범희(1985)가 Leary(1957)와 Krech(1962)의 모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검사를 지용근(1996)이 초등학교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교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역할성향은 지배-우월, 독립-책임의 2개 요인, 사회적 관계성향은 동정-수용, 사교-우호의 2개 요인, 표현성향은 과시-자기도취, 경쟁-공격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총 문항은 84개이며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별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배-우월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장적

이고 독단적이며, 독립-책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판단적이고 책임의식이 철저함을 의미한다. 동정-수용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허용적이고 포용력이 있으며 사교-우호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하고 동조적임을 의미한다. 경쟁-공격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간섭을 싫어하고 비판적이며, 과시-자기도취 요인이 높은 사람은 자기 노출을 잘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지배-우월적 역할성향은 .66, 독립-책임적 역할성향은 .70, 동정-수용적 사회관계성향은 .82, 사교-우호적 사회관계성향은 .78,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은 .82,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은 .62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 SPSS 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체 변인들 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표 2〉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 간의 상관분석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대인관계 성향					
	아동 아버지	아동 어머니	가족 퇴행	자아 통합	인지 정서	정서 단절	가족 투사	지배 우월	독립 책임	동정 수용	사교 우호	경쟁 공격	과시 도취
아동아버지	-												
아동어머니	.61**	-											
가족퇴행	-.50**	-.44**	-										
자아통합	-.16**	-.16**	.04	-									
인지정서	.21**	.19**	.34**	-.13**	-								
정서단절	-.44**	-.47**	.46**	.18**	-.20**	-							
가족투사	-.19**	-.24**	.35**	.08**	-.43**	.27**	-						
지배우월	-.12**	-.14**	.12**	.51**	-.15**	.14**	.11**	-					
독립책임	.24**	.24**	-.21**	.08**	.14**	-.14**	-.11**	.17**	-				
동정수용	.38**	.37**	-.32**	.03	.39**	-.23**	-.24**	-.01	.51**	-			
사교우호	.39**	.36**	-.27**	.00	.28**	-.25**	-.18**	.02	.48**	.72**	-		
경쟁공격	.05	.07*	.12**	.02	-.40**	-.06*	.23**	.19**	.21**	-.04	.09**	-	
과시도취	.21**	.21**	-.18**	.21**	.09**	-.12**	-.14**	.32**	.32**	.38**	.38**	.24**	-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을 29%, 정서단절을 26% 설명하고 있으며, 자아통합과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가족투사를 각각 4%, 6%, 6% 설명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지각이 높을수록 가족퇴행 수준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가족퇴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으며, 그 중 어머니보다 아버

지에 대한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아동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부 $\beta = .36, p < .001$; 모 $\beta = .23, p < .001$).

정서단절에 대해서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정서단절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정서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으며, 그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영향력이 더 컸다(부 $\beta = -.25, p < .001$; 모 $\beta = -.32,$

〈표 3〉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자유친성정	자 아 분 화									
	가족퇴행		자아통합		인지정서		정서단절		가족투사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동-아버지	-.38	-.36***	-.09	-.09**	.14	.14***	-.25	-.25***	-.09	-.08**
아동-어머니	-.24	-.23***	-.12	-.12***	.12	.12***	-.33	-.32***	-.22	-.19***
R ²	.29		.04		.06		.26		.06	
F	244.10***		24.2***		37.67***		217.30***		40.47***	

* $p < .05$ ** $p < .01$ *** $p < .001$

$p<.001$).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에 대해서는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의 분화 수준이 높았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으며, 그 중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컸다(부 $\beta=.14, p<.001$; 모 $\beta=.12, p<.001$).

가족투사 수준에 대해서도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가족투사 수준이 낮았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모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가족투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했으며, 그 중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다(부 $\beta=-.08, p<.001$; 모 $\beta=-.19, p<.001$).

마지막으로 자아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아통합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자아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다(부 $\beta=-.09, p<.001$; 모 $\beta=-.12, p<.001$).

종합해 보면,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의 5가지 하위요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분화수준이 높고, 가족퇴행과 자아통합, 정서단절, 가족투사수준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도

높아졌다. 다만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아통합의 수준은 낮아졌는데, 부모자녀관계의 심정적 동일체감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을 때 자기 주장성을 견지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동정 수용적 성향과 사교 우호적 성향을 17%로 가장 높게 설명하였으며, 독립 책임적 성향과 과시 도취적 성향에 대해서 각각 7%, 5%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동정 수용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26, p<.001$)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20, p<.001$)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앞선 결과들과 일관되게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컸다.

사교 우호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29, p<.001$)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17, p<.001$)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역시 아버지에 대

〈표 4〉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아동의 부자유친성정	대인관계 성향									
	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동-아버지	-.06	-.06	.20	.18***	.24	.26***	.28	.29***	.13	.12***
아동-어머니	-.12	-.11***	.13	.11***	.18	.20***	.16	.17***	.15	.14***
R ²	.03		.07		.17		.17		.05	
F	15.86***		45.55***		127.25***		124.56***		35.07***	

* $p<.05$ ** $p<.01$ *** $p<.001$

〈표 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성향											
	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고우호		경쟁공격		과시도취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동-아버지	.03	.03	.21	.19***	.21	.23***	.25	.26***	.15	.12***	.13	.12***
아동-어머니	-.03	-.03	.10	.08*	.14	.16***	.12	.12***	.07	.05	.13	.12***
가족퇴행	.09	.09**	-.06	-.05	-.01	-.02	.03	.03	.15	.12***	-.03	-.03
자아통합	.58	.54***	.16	.14***	.15	.16***	.10	.10***	-.03	-.02	.29	-.27***
인지정서	-.05	-.04	.11	.09**	.31	.34***	.20	.21***	-.57	-.43***	.05	.05
정서단절	-.02	-.02	-.08	-.01	.00	.00	-.09	-.09**	-.19	-.15***	-.02	-.02
가족투사	.02	.02	.02	.02	-.02	-.03	-.01	-.12	.11	.10**	-.08	-.08**
R ²	.32		.10		.31		.22		.26		.13	
F	74.34***		17.59***		69.77***		43.57***		53.84***		23.64***	

* $p < .05$ ** $p < .01$ *** $p < .001$

한 부자유친성정이 어머니에 비해 더 컸다.

독립 책임적 성향과 과시 도취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 = .18, p < .001$; $\beta = .12, p < .001$)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 = .11, p < .001$; $\beta = .14, p < .001$)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지배 우월적 성향에 대해서는 3%를 설명하는데 그쳤고, 유일하게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 = -.11, p < .001$)이 높을수록 지배 우월적 성향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컸다. 먼저, 동정 수용적 성향과 사고 우호적 성향, 독립 책임적 성향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시 도취적 성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는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 중 지배 우월적 성향에 대해 32%, 동정 수용적 성향에 대해 31%, 경쟁 공격적 성향에 대해 26%, 사고 우호적 성향에 대해 22%, 과시 도취적 성향에 대해 13%, 독립 책임적 성향에 대해 10%를 설명하여 전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배 우월적 성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아통합($\beta = .54, p < .001$)과 가족퇴행수준($\beta = .09,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동정 수용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 = .23, p < .001$)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 = .16, p < .001$), 그리고 자아분화 중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beta = .34, p < .001$)과 자아통합($\beta = .16,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

성정의 영향력이었다. 부자유친성정은 앞선 결과와 일관되게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컸다.

사교 우호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26, p<.001$)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12, p<.001$), 그리고 자아분화 중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beta=.21, p<.001$)과 자아통합($\beta=.10, p<.001$), 정서단절($\beta=-.09,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동정 수용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보다 영향력이 컸다. 자아분화 중에서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

경쟁 공격적 성향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beta=-.43, p<.001$), 정서단절($\beta=-.15, p<.001$), 가족퇴행($\beta=.12,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자유친성정 중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beta=.12, p<.001$)만이 경쟁 공격적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과시 도취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부 $\beta=.12, p<.001$; 모 $\beta=.12, p<.001$) 계속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분화 중 자아통합($\beta=-.27,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 책임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beta=.19, p<.001$)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분화 중 자아통합($\beta=.14, p<.001$)이 그 다음을 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역시($\beta=.18, p<.05$)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beta=.09, p<.01$)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그 간의 부모자녀관계 연구 대다수가 서양의 이론과 연구도구에 의존해 온 데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관계 연구가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내 부모자녀관계는 최초의 관계경험으로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며 이후 대인관계로 확장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인 부자유친성정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개인의 심리내적 안정감과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구성개념 중 하나이자 서양의 이론을 토대로 한 자아분화의 발달에 부자유친성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지 영향력은 어떠한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아동은 가족의 퇴행적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미분화 수준이 낮고, 정서단절이 적으며, 가족투사를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응집성과 관련된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관계 수준이 높은 밀착된 관계일수록 청소년들의 개별화나 심리적 성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비행이나 자살 혹은 식욕장애 등의 행동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신 내적 증상과 관련된 장애를 보일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er, 1992; Barber et al., 1994; Beavers, Lewis, Gossett, &

Phillips, 1975).

그러나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들을 나타냈다. 즉 응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사회적 부적응이나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자존감이나 자아분화 수준은 오히려 높았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박유화, 2001; 심혜숙·신영규, 1994; 안양희, 1998; 이장주, 2002; 전귀연, 1993; 최인재 2004).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 내에서 서로 강조하고 중요시 하는 특성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최인재, 2004).

한편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통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아통합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잘 견지하고 있느냐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즉, 외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주장을 펼치며 자기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반면 심정적 일체감과 헌신을 강조하는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아들은 자기주장 보다는 조화와 순응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주장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자유친성정이 자아통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단지 이에 대한 평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단순해석 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은 대인관계성향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친사회적 성향을 설명하는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기 우월적이고 독단적이기 보다 조화롭고 순응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부자유친성정의 핵심 개념인 타

인과의 일체감과 조화, 타인에 대한 측은지정이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동정 수용적이고 사교 우호적인 친사회적 성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조망 수용능력과 공감능력에 초점을 두어왔다. 최근 부모자녀관계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힌 문연심(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에는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기초한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깊이 있는 정서적 교류체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심정적 교환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양육행동이라는 표면적 현상보다 본질적이고 심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정 수용적 성향과 사교 우호적 성향에 대해서 아동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컸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권에서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이 되는 사회관계 성향은 자아분화에 비해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심정적 교류의 경험이 더 큰 예측력을 갖는다. 이는 아동의 사회관계에 있어 자기 주장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특성보다 타인과의 심정적 교류 경험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배 우월적 성향과 과시 도취적 성향에서는 자아분화 중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자아통합 하위요인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부자유친성정은 그에 비해 영향력이 적거나 아예 유의한 영향을 못 미쳤다.

종합해 보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 자아분화 수준은 여전히 중요하나, 대인관계 성향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자유친성정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자아분화는 지배 우월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대인관계의 역할성향이나 표현성향에 부자유친성정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서구문화에서 개별화, 개성화, 자기 주장성이 중요하며 대인관계를 통해 분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반면, 한국문화에서는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발달을 도모하고,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발달시켜 성숙으로 향하는 문화적 차이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부자유친성정은 혈육지정의 심정적 결속이기에 아동의 자아가 발달하고 분화되어 가는데 기본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감은 문화적으로 채색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전해져 상호작용방식을 결정하므로 대인관계 성향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일체감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심정적 결속은 아동의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면, 지배 우월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대인관계 성향은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는 우리 문화권에서 관계란 조화와 수용, 하나됨을 강조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개인의 고유성, 독특성, 자신감과 성취에 대해 강조하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치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적 속성이 아동의 자아분화 발달과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전통적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을 비롯하여 자존감이나 성취동기, 심리적 안정감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지 살펴봄으로써 그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토양에 걸맞는 양육태도와 양육관을 확립하는 데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박영신·김명언·이건우·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5(1), 119-145.
- 김효창·손영미·박정열·최상진(2000). 발달단계로서의 '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89-103.
- 안범희(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양희(199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기영(2004).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교육발전*, 21(1), 167-197.
- 이장주(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주·최상진 (2003).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및성격*, 17(3), 87-104.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

- 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지용근(1996). 인간관계 훈련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심포지움, 5-21.
- 최상진(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재(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함병미 · 박영신 · 김의철(2003).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192.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Barber, B. K.(1992). C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eavers, W. R., Lewis, J. M., Gossett, J. T., & Phillips, V. A.(1975) Crucial variables in healthy family systems. *Dallas Medical Journal*, 61, 313-317.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ve of Psychotherapy. In P.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Krech, D., et al.(1962). *Indivisual in society*. NY : McGraw-Hill.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Y : The Ronal Press Company.
- Tamura, T., & Lau, A.(1992). Connectedness Versus Seperatedness :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1월 28일 채택